

케어랩스, '굿닥 병원 접수 서비스' 누적 이용 300 만 건 돌파

- '굿닥 병원 접수 서비스', 론칭 1 년 만에 누적 이용 300 만 돌파
- 현재 약 800 개 병원에서 굿닥 병원 접수 서비스 사용 중
- 약 1 만 8 천 개의 병원과 제휴 성공,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 인프라 구축

[2018-10-25 | 263700] 케어랩스(대표 김동수)의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www.goodoc.co.kr)'의 병원 접수 서비스가 도입 1 년 만에 누적 이용 건수 300 만 건을 돌파했다.

굿닥 병원 접수 서비스는 기존 환자의 자필 접수 방식과 달리 병원 내에 비치된 굿닥 태블릿을 통한 접수 방식으로, 환자는 접수 후에 스마트폰으로 대기인원과 병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병원은 접수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 전자의무기록) 회사와의 연동을 통해 환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난 2017 년 7 월 론칭 이후 1 년여 만에 전국 약 800 개 병원에서 굿닥 병원 접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17 개 EMR 회사와 연계를 통해 1:2 차 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 치과 등 주요 진료 과목을 포함한 1 만 8 천 곳의 병원과 제휴하는 등 병원 제휴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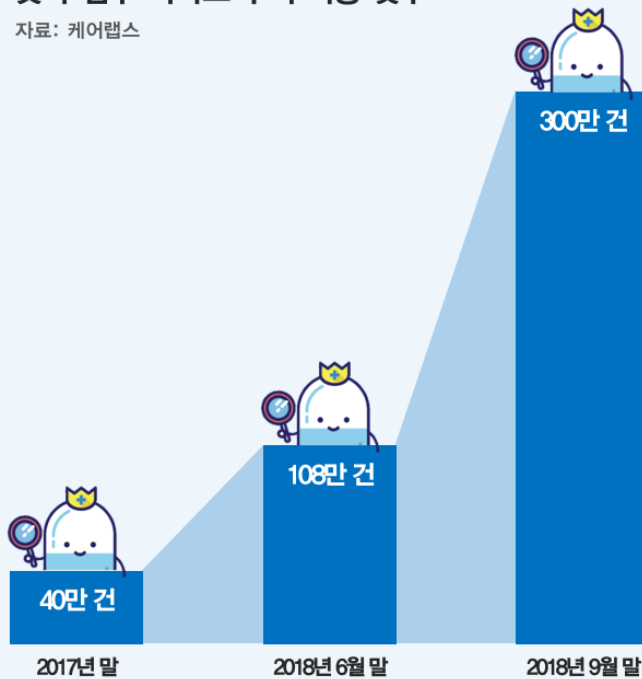
향후 케어랩스는 굿닥의 모바일 플랫폼 인프라와 병원 서비스를 결합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을 구현할 계획이다.

박경득 굿닥 사업 본부장은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굿닥 사업부의 철학"이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동시에 서비스 확장 속도에도 박차를 가하여 헬스케어 시장에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굿닥의 병원 접수 서비스는 병원 접수 홈페이지(booking.goodoc.co.kr)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끝>

굿닥 접수 서비스 누적 이용 횟수

자료: 케어랩스



[회사소개]

CARELABS

케어랩스는 2012년 설립된 헬스케어 O2O 솔루션 기업으로, 2018년 3월 국내 O2O 기업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업계 1위 앱 서비스 '굿닥'·'바비톡' ▲병원 및 약국 운영 시스템(S/W) 솔루션 ▲헬스케어 분야 특화 마케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국내 헬스케어 O2O 시장 내 독보적 입지를 선점하고 있다. '병원 위치검색 - 접수 및 진료 - 처방전 결제'로 이어지는 '원스톱 진료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며, 헬스케어 및 뷰티케어 부문의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yello mobile

옐로모바일은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B2C)와 맞춤형 솔루션(B2B)을 제공하는 종합 디지털 플랫폼 그룹이다.

핀테크, 애드테크, 헬스케어, O2O, 미디어커머스 등의 핵심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한다.

2012년 창립 이래,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에 발맞춰 변화를 선도해온 옐로모바일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기술 기반의 혁신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보도자료 문의]

케어랩스 IR 팀

강진규: 02-6929-2340 / kangjq@carelabs.co.kr

옐로모바일 홍보실

김유정: 010-3266-1332 / actionpr@yellomobile.com

한효정: 010-3272-0185 / han0209@yellomobile.com

채재선: 010-4510-6287 / chae@yellomobile.com